

칸트 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十)

李相殷

이 모든 辯論은 論理의 原則으로 解決 할 수 업는 것이다. 正, 反 兩論에 對하여 어느 것을 取하고 어느 것을 捨 할 것은 오즉 個人의 實際的 興味에 맞길 맞게 업다.

그러나 칸트는 이것을 調和시키는 方法이 있다. 그것은 卽 現象과 本體를 區別하는 것이다. 그는 反論에서 主張하는 것을 모다 現象界에 關한 것이라 하고 正論에서 主張하는 것을 모다 本體界에 關한 것이라 하였다. 例컨대 第一種의 辯論에 對하여 말하면 우리의 經驗하는 時空의 世界에 잇서서는 確實히 時間 上의 始初가 업고 空間 上의 終止도 업다. 時間 上으로 如何히 伸長하여도 空間 上으로 如何히 伸張하여도 우리는 永遠히 一個의 止點을 □着 할 수 업다. 그러나 或是엇던 非空間的 쏘는 非時間的 世界가 잇슬런지도 모르니 그러타면 거제는 絶對 單純한 存在--一個 靈魂的 實體가 잇슬 수도 잇는 것이다. 우리는 이 世界가 限界업다하여 저 世界도 無限하리고 斷定키는 어렵다. 엇재든지 本體世界의 有始, 有終은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依然히 이 超感覺의 世界에 잇서서 空間을 所有한 靈魂的 實體라든가 그 他空間의 事物을 차즈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因果의 問題도 이와 가티 解決 할 수 있다. 現象의 系列 가운데서는 事物마다 모다 相類한 엇던 他事物의 規定한 배되어야 每個의 果는 모다 每個의 現象的 因을 가졌다. 이 因果의 聯還은 □隙이 업다. 이 無盡한 因果의 高리를 끝까지 □究함이 우리의 職務이다. 그러나 同時에 이것도 不可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現象的 世界는 或是 엇던 本能的 條件이 잇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現象의 系列 以外에 따로 엇던 무엇이 잇서서 이 現象的 條件의 原因이 되고 잇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타면 이 本體界는 一個의 無條件이며 一個의 無原因의 原因- 卽 自造的 原因이 될 수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가튼 一個 現象이라도 時空의 現象界의 一部分으로 看做하면 그것은 因

果의 連環 中의 一節이 되고 非知覺的인 物自體로 看做한다면 自由原因의 自由動作이 된다. 다만 그 動作의 結果가 우리의 感覺世界로 表現되었을 뿐이다. 一面으로 보면 事物은 自然의 結果라 할 수 있고 他 一面으로 보면 事物은 自由의 結果라 할 수 있다. 맞귀 말하면 一個의 結果는 一個 現象이요, 每個의 現象은 반듯이 經驗的 原因이 있다. 그러나 同時에 이 經驗的 原因 自身은 一個의 非經驗的 原因의 結果과 될 수도 잇스며 卞라 이 卞문에 그 自然原因과의 關係를 損失치 안을 것이 必然的 存在 問題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感覺的 經驗에 잇서서 우리는 實로 반듯이 이 世界의 原因이 되어야 할 엇던 □立自存的 實在를 차저낼 수 업다. 이 世界는 다만 偶然 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理性은 이 世界는 엇던 非知覺的 世界에 依하여 存在한다고 想像 할 수 있다. 理性은 實로 이런 本體世界를 假定 할 必要가 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엇던한 것인지를 알 수 업고 오즉 이렇게 假定만 할 뿐이며 想像만 할 뿐이다.

C 唯理的 神學. 우리의 理性은 絶對를 求하기에 熱中하니 만치 그는 우리의 모든 經驗을 綜合에 綜合을 加하며 統一에 統一을 加하여 最後에 單 一個의 全體的 觀念에 □結식하고 그 一個의 觀念을 한 個의 個體로 하며 卞라 서 卞 그것을 一種의 人格으로까지 認做하고 自己의 假定한 觀念인 것을 忘却한다. 이 觀念을 칸트는 超越的 神學의 理想이라 하고 神學에서는 普通上帝(Gcas)라 한다. 神學 上 上帝存在의 證明은 세 가지 方法에 不過하니 一은 自然神學的이요, 一은 宇宙論的이요, 一은 本體論的이다. 그러나 모다 成立되 지 못한다. 첫째 本體論은 證明하기를 『上帝는 가장 實在的인 것이기 卞문에 그는 存在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實在的인 것』이란 이 觀念은 『存在』의 意義를 包含하지 안었다. 存在하려면 반듯이 知覺 할 수 잇는 物體이라야 하 다. 『가장 實在的인 것』이란 것은 다만 虛構나 觀念일 뿐이요, 知覺 할 수 잇는 物體는 아니다. 宇宙論의 證明은 『上帝는 絶對必要한 것이기 卞문에 그 것은 存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妥當치 못하다. 우리는 엇던 물건이 우리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하여 그것이 卽 存在한다고 말할 수 업다. 이는 本體論의 證明을 重□하는데 不過하다. 自然神學의 證明은 現實存在를 推證 한다. 이 世界가 이렇게 秩序잇고 이렇게 美滿한 것은 반듯이 엇던한 意□이 自己의 一定한 計□에 依하여 그것을 曼드러 낸 것이 안이면 안된다. 그러치 안타면 이 世界가 엇지 이처럼 秩序잇고 美滿 할 수 잇겠는가? 이 意□은 卽 上帝어다. 勿論 이런 證明은 情理에 過近하다. 그러나 依然히 正確하다 할 수 어스니 이난 證明이 아니라 比喩에 不過한 것이다. 그들은 上帝가 世界에 對한 關係를 사람이 人造品, 時計, 家屋 等)에 對한 關係에 比喩하여 時計나

家屋의 巧妙한 組織은 그 組織의 圖□或은 設計를 꾸며낸 創造者 업스면 안 되는 것과 가치 이 世界의 秩序와 美滿은 그것을 그러케 設計해 노흔 造物主 업스면 아니 된다 한다. 그리하여 時計가 잇스면 그 時計를 맨드러 낸 사람이 잇는 것과 가티 이 世界는 이 世界을 創造한 上帝가 잇다 한다. 그러나 이런 比類는 한갓 듯기만 조흘 썬이오, 實質上 아무런 意義도 업나니 사람과 時計는 모다 우리가 經驗 할 수 잇는 것이 어니와 上帝와 世界는 經驗 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것은 詩人이나 宗教家의 比喻에 不過하고 哲學的 證明이라 할 수도 업다.